

목포 내항 옛 수협 위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속도’

침수 위험 해소·해안 경관 회복 등…내년부터 실시설계 추진
총사업비 140억원…공공 인프라 구축 뒤 관광·상업시설 개발

목포시 내항의 옛 목포수협 위판장 부지에 추진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목포항 내항 소규모항만 재생사업’ 기본설계비 4억원이 최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목포 내항은 목포수협 위판장이 지난 2023년 북항 이전 이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옛 목포수협 위판장 부지는 노후시설로 해양경관을 저해하고, 매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

해가 반복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 ▲대반동-내항 해안선 정비를 통한 해양경관 개선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약 140억원으로, 공공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관광·상업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국제여객터미널, 근대역사의 거리, 낚시공원, 대반동 스카이워크, 해상케이블카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갖춘 복합해양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 반영으로 침수 위험 해소는 물론 대반동-내항 약 2km 구간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민간투자까지 연계해 목포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 내항 옛 목포수협 위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조감도.

목포시,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3000억 투자 유치

호남베스 유한회사와 협약
내년까지 목포대양산단 내 구축
재생에너지 전력 저장 후 공급

목포시가 호남베스 유한회사(대표 조언우)와 3000억원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은 호남베스가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목포대양산단 내 약 1만 7160㎡(5200평) 규모의 산업용지에 99MW(PCS)/700MWh급 BESS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ESS는 재생에너지 등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이번에 구축되는 99MW급 BESS에는 약 700MWh의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가 설치되며, 이는 목포 시민 약 25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호남베스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제도는 재생에너



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호남베스 유한회사는 호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 개발사 에퀴스(Equis)의 자회사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대양산단에 대규모 배터

완도 섬마을은 지금 축제 중

금일·약산·생일도, 특산물 주제…전통시장·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완도군이 9월 중에 금일과 약산, 생일도 등 섬지역 곳곳에서 섬과 바다, 특산물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축제를 연다.
6일 다시마의 본고장, 완도 금일읍에서 다시마 축제가 개최된다. 금일읍은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 이상 차지하는 곳으로, 다시마의 가치와 맛을 알리는 축제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같은 날 약산면에서는 진달래·흑염소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흑염소 목장 체험을 비롯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청정바다와 난대림이 어우러진 ‘약산 해안치유의 숲’도 빠질 수 없는 힐링 코스다.
오는 13일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생일면에

서는 면민 화합행사와 노래자랑, 공연 등이 어우러진 축제가 열린다.
생일도를 상징하는 대형 케이크와 백운산, 금곡해수욕장, 용출 갯벌발 등이 가볼 만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식당과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반 2인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료를 3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 섬마을 축제에는 자연 속 힐링, 특산물 요리경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며 “9월 주말에는 완도를 찾아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취재본부장 ejhung@

신안 다이아몬드 해역 물고기 아파트 조성

인공어초 투하로 수산자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안군이 다이아몬드 해역의 해양 관광과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해 물고기 아파트 조성에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1일 다이아몬드 해역 내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68개를 투하했다. 또 오는 10월에도 107개의 인공어초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하된 인공어초는 해역 특성과 수산생물의 은신처 제공, 해조류 부착 표면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산자원 산란과 서식을 위해 설치됐다.
신안군은 2022년부터 5년간 총 90억원을 투입해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027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했고, 130만 마리의 수산 종자를 방류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인공어초 투하와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다이아몬드 해역이 수산자원 공급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낚시 관광 확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군이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 공간 조성을 위해 다이아몬드 해역에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국민 간식’ 해남고구마 수확 시작

연간 3만 4000t 생산 전국 10%

해남의 드넓은 황토밭에서 ‘국민간식’ 고구마 수확이 시작됐다.
해남군에서는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42호’로 등록된 해남 고구마가 600여 농가에서 재배 중이다.
재배면적은 1964ha, 연간 생산량은 3만 4000t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한다.
해남은 게르마늄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황토, 풍

부한 일조량,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명품 고구마가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자랑한다. 해남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하다. 면역력을 높이는 파이토케미컬과 같은 영양성분도 가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다.
7월 말 조기재배용 받고구마인 진율미를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호풍미 등 받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정도 식감의 팔고구마 품종이, 10월부터는 달고 부드러운 호박고구마 품종이 차례로 수확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생활권 녹지 확충 365일 꽃피는 ‘진도’

진도군이 생활권 내 녹지 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사계절 내내 꽃과 숲을 누리는 ‘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 속도를 내고 있다.
진도군은 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과 진도항 일원 등 대규모 꽃단지 10곳을 포함해 총 28만 4832㎡ 규모의 꽃길·꽃동산·꽃단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체 생산한 꽃모종 31만 본과 꽃씨 7000㎏을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특히 백조 호수공원 꽃길과 윤림산림욕장 수목공원은 형형색색의 꽃과 수목이 만발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주요 도로변 5곳(연장 46km)의 가로수길에 대해 풀베기 작업과 가로수 5248주의 가지치기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했다. 소공원 24곳(28만1727㎡)과 주민단체 참여숲·도시숲 26곳(11만9,750㎡)을 정비해 군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 성산공원에 ‘정원형 파크골프장’ 전국 첫 조성

성곽 있던 자리 발굴 조사 완료
이달까지 실시설계…연내 착공
여가·운동·휴식 ‘복합 힐링 공간’

영광군이 영광읍 성산근린공원 내에 18홀 규모의 정원형 파크골프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한다.
영광군은 성산공원 파크골프장 실시설계를 9월 말까지 완료하고 연내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는 과거 성곽이 있었던 역사 문화유산 지역이다.
영광군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6월까지 2년간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한 결과 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조성될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각 홀마다 정원 테마를 적용한 ‘정원형 콘셉트’로 조성된다.
이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로 여가·운동·휴식·경관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중앙초등학교 뒷편에 위치한 성산근린공원.

특히 파크골프장 조성지는 군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영광읍 중심권에 위치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권형 여가시설이 될 전망이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보완하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심 속 문화·레저 복합 공간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4점 분재정원에서는 주목 분재의 깊이는 매력 뿐만 아니라 소나무, 소사, 철쭉 등 다양한 수종의 명품 분재들도 같이 감상할 수 있다”면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순백의 팼파스그라스와 보랏빛 맥문동꽃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성산근린공원 정원형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녹색 쉼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수천년 수령 ‘주목나무 분재’의 아름다움

신안군, 21일까지 특별전

신안군이 오는 21일까지 압해읍 1004점 분재정원에서 ‘주목나무 분재 특별전’을 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아름다움과 생명력, 희망의 상징으로 재조명 되다’란 주제로 개최되고 있는 이번 특별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주목 분재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수천 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듯한 2000년 된 주목나무 분재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

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목나무는 예로부터 ‘죽지 않는 나무’로 불리며,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놀라운 수령을 자랑하는 장수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우아한 자태와 뛰어난 생명력 덕분에 분재 예술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
신안군 관계자는 “1004점 분재정원에서는 주목 분재의 깊이는 매력 뿐만 아니라 소나무, 소사, 철쭉 등 다양한 수종의 명품 분재들도 같이 감상할 수 있다”면서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순백의 팼파스그라스와 보랏빛 맥문동꽃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주목나무 분재.

불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